

국어과 제 7차 교육과정의 검토와 국어교육의 전망

곽재용*

〈목 차〉

- I. 서론
- II. 창의성의 강조
- III. 재량시간 확대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 IV. 국어교육의 위상 강화
- V. 위계성의 강화
- VI. 통합의 지향
- VII. 국어교육의 전망
 - 1.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반성
 - 2. 영어지배설의 허실
 - 3. 국어교육의 전망

I. 서론

교육과정이란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어떠한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은 공통적·일반적 기준이다. 이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적 특수성과 실태를 반영한 지침을 만들고, 각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과 시·도별 지침에 따라 그 학교의 실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 각 지역과 학교,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방 후 교육과정은 모두 8차례에 걸쳐 마련해 왔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진주교육대학 국문과 교수

- 교수요목(1946)
- 제 1 차 교육과정(1955)
- 제 2 차 교육과정(1963)
- 제 3 차 교육과정(1973)
- 제 4 차 교육과정(1981)
- 제 5 차 교육과정(1987)
- 제 6 차 교육과정(1992)
- 제 7 차 교육과정(1997)

즉, 미군정 시행 당시 교육과정인 교수요목에서부터 이번의 제7차 교육과정까지 모두 8차례의 교육과정이 있었다.

여기서는 교육법 제 1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부 고시 제 1997-15(1997. 12. 30.)호로 공포된 제 7차 교육과정 중,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해 앞선 교육과정들과 비교·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 국어교육의 앞날을 내다보고자 한다. 그런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중 특정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검토하는 일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이 교육과정에 대해 정통해 있어서 비판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둘 다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대안 없는 비판일변도도 문제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답시고 지나친 지지를 보내는 일도 자칫하면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해 소망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정통해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 가장 좋은 논자는 이 개정 작업에 비판적으로 참여한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두뇌집단이 모여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개최한 결과 얻은 최선의 결론인 교육과정을, 한 개인이 비판하는 자체가 역부족이 될 수도 있다.¹⁾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이 글에서처럼 국어과와 같

1) 실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석 달 후 교육과정 특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1997년 12월 30일 초·중등학교 제 7차 교육과정을 고시하기까지 2년 7개월이 걸렸다. 또 이 개정 작업에는 현장 교원, 학부모, 학생, 교육과정 전문가 등 연인원 4,598명이 참석하여 현장 검토,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 심의회 등 총 80회 검토·협의와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평가, 학부모·교사·학생 및 국가·사회적 개정 요구 조사, 통합 교과목의 교육과정, 교과서 구조개선 연구, 교육과정의 동향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하여 21세기의 학교 교육의 모습을 전망하고 교육과정의 체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은 각과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항상 교육과정 전체를 조망하는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이 논의가 교육과정 중 국어과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은 총론적인 교육과정 구상의 방향이나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등과 무관한 논의를 할 수는 없다. 각과 교육과정은 상위 개념인 앞의 총론부분의 방향이나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는 수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 교육과정만 나와 있지 이것에 대한 해설서 하나 출판되지 않은 상황이라, 교육과정 개정의 철학적 배경이나 시대적 상황, 교육이론 등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없는 상태이고, 필자의 자질 역시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깊이 있는 비판이나 대안 제시보다도 제7차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차원 정도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21세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우리의 국어 교육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 이를 영어와 영어교육과 관련시켜서 생각해본다.

II. 창의성의 강조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이념적 기저로 전 교과를 통틀어 추구하는 인간상은²⁾은 교육법 제 1조에 나타난 대로 홍익인간의 이념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과,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두었다.

이런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으로 모두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개성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2) 물론 ‘추구하는 인간상’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상위영역이다. 그러나 이 항목을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바탕으로 되어서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이 도출되기 때문이고, 또한 국어과와 밀접히 관련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개척적인 사람, 문화적인 사람, 민주적인 사람'으로 요약된다. 이를 단순히 보면 제 6차의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의 네 가지보다 한 가지가 늘어난 것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제 6차에 없던 '개성적인 사람, 개척적인 사람, 문화적인 사람, 민주적인 사람' 등이 추가된 셈이다. 동시에 6차의 네 항목 중 빠진 것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의 세 항목이다. 이들을 겹으로 비교하면 대폭 물갈이가 된 셈이다. 그러나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6차의 '자주적인 사람'과 7차의 '개성적인 사람'은 동렬에 놓일 수 있는 항목이고 6차의 '도덕적인 사람'과 7차의 '전인적 성장'을 언급한 '가' 항이나 민주 시민 의식을 강조한 '마' 항은 통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적어도 외형상 6차와 7차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대폭 교체된 것으로 파악되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갈이의 골자는 7차의 가, 나, 다³⁾ 항에 나와 있지만 개성과 창의력을 기르자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왜 6차의 첫 번째 나오는 건강인이나 도덕인 같은 인간적 품성이 없어지거나 약화되고⁴⁾ 개성과 창의를 맨 앞장을 서게 되었느냐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닥친 21세기는 단순한 건강인과 도덕인만 강조할 수 없는 변화와 격동의 시대가 되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하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정보화와 국제화로 요약되는 21세기가 되면 국제 사회에는 지금까지 어느 시기보다도 심한

3) 제 7차 교육과정의 다 항도 기실은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자는 내용과 부합된다. 진로를 개척한다는 것 또한 매우 창의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첫째, 둘째, 셋째가 모두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 기르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교육과정 입안자들이 얼마나 창의성을 중요시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4) 건강한 사람과 같은 6차의 덕목이 7차에 와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7차의 가 항에서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란 말은 바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인적 성장, 즉 건강한 사람이 된 바탕 위에서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니깐 건강한 사람이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강한 사람 자체를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잡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따라서 7차의 포괄적인 언급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제 7차 마 항과 제 6차의 도덕적인 사람과 비교해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어쨌든 7차에는 건강한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과 같은 직설적 가치관이 사라지고 보다 포괄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세계를 품어하던 가치관이나 정치, 경제, 군사상의 법칙과 원리들이 상당수 사라지고 보다 새로운 힘의 논리에 의한 국제질서가 재편될 것임은 이미 금세기말인 지금 곳곳에서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보다 더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승리자로 남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만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고, 이것의 개발과 발전은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예로서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을 거명할 수 있는데 이 사람과 같은 한 창의적인 인간의 출현이 국가의 경제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때로는 기성세대의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은 보다 개성화 되고 창조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데 몰두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소의 전통적인 가치들이 없어지거나 유보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금과옥조처럼 평가에서 활용되던 객관식 문항들은 급격히 사라질 것이며, 교육 수행에도 혁신적인 방법론들이 대두될 것이다. 이를 국어교과와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국어과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같은 언어 사용 활동이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이들 활동을 통해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국어과가 이들 능력을 기르는 데 가장 근접한 교과라고 할 수 있다.

국어과와 밀접히 관련되는 항목은 ‘라’ 항이다. ‘라’ 항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의 두 내용이 체계를 이루고 있다. 국어과가 실현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은 언어가 바탕이 되고 이것의 총체적 모습이 문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문화의 진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문화’가 ‘우리 문화’라는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자칫하면 우리 것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한 세계의 여러 문화를 수입하는 것이 우려되는 시기에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노력과 자세가 절실히 요청된다. 우선 우리 문화의 핵심은 국어이고 이를 잘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대 명제가 성립한다. 이것을 교육과정의 앞부분에 둔 것은 잘못하고 있는 수입 위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성적 사고이며, 교육과정 입안자들도 이것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6차까지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던 추구하는 인

간상은 7차에 와서 보다 현실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비판하자면 이 다섯 항목들이 다섯 개의 덕목을 추구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열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가’ 항은 전인적 성장과 개성 추구라는 두 항목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추구하는 인간상이 제6차 교육과정에서 4개였다가 10개로 늘어난 셈인데 이런 가짓수는 자칫하면 초점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너무 많은 항목은 항목이 전혀 없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 나, 다’ 항이 내용상 유사하다. 따라서 항목을 줄임으로써 강조점을 부각시키는 점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Ⅲ. 재량시간 확대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이번 교육과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재량 시간을 확대한 점이다. 이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재량 시간은 기본 교과 재량 시간과 기본 교과 외 재량 시간으로 구분되며, 기본 교과 외 재량 시간에는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활동과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활동이 포함되게 된다.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에는 학생의 관심에 따라 주제의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활동, 교과 및 특별 활동의 보충 심화 활동 내용을 다룰 수 있고,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으로는 인성교육, 환경교육, 성교육, 세계이해교육, 통일교육, 진로교육, 보건교육, 안전교육, 경제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이 있어서 활동 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열린 교육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이수 과목 수를 축소하고, 교과별로 학습 내용의 최적화를 도모하였다.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중의 교과수를 10개의 기본 교과로 한정하였다. 또한 모든 교과의 이수 시간을 최소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교과서 내용 구성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으로써 교과별 학습 내용의 정선과 범위·수준의 적정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교과 학습 내용은 학습자의 경험의 질을 중시하여 최저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선정·조직하고, 수준별 교육 과정의 도입과 함께 학습 결손의 누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2, 3학년에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고등학교 2, 3학년은 학생의 장래 진로나 적성에 따른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의 성격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학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였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으로 나누어 편성되었으며, 원칙적으로 과정이나 계열의 구분 없이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국어과의 경우 일반 선택 과목은 ‘국어생활’이며 심화 선택 과목은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의 다섯 과목이다. 화법은 ‘말하기와 듣기’, 독서는 ‘읽기’, 작문은 ‘쓰기’, 문법은 ‘국어지식’의 다른 이름이다. 재량시간 확대와 이수 과목 수의 축소,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은 학습 결정권의 상당부분을 학교와 학생에게 이양한 것이며, 특히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가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IV. 국어교육의 위상 강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중의 하나는 이수 과목 수를 축소하고 교과별로 학습 내용의 최적화를 도모한 점이다. 국어과의 경우, 교육과정 입안자들은 제 7차에서 이 교과와 위상을 낮추어보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역시 국어가 없어질 지 모른다는 위기감의 발로일 것이다. 특히 1997년 3월 1일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교육하기 시작한 상황을 고려한 결과이다. 확대하면 이것은 이제 전 국민에게 영어를 의무적으로 습득할 것을 강요하는 성격이며, 이 강요는 영어를 공용어로 삼겠다는 의지와 국어의 전통을 단절해도 불가피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다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는 현대사회의 풍조가 극심해질 상황이 되면 민족의식은 급격히 사라진 것이고 아울러 국어는 설 땅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민족어의 종식은 이미 추정해본 1세기 후 21세기 말보다 얼마큼 더 앞당겨질지도 모를 위태한 전망이다. 이를 늦추거나 역전시킬 관건은 교육에 있고 이를 의식한 포석의 일단이 제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어과의 위상적 측면이라고 본다.

국어과의 위상 강화의 근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국어과 시간 수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제 6차까지 국어과 시수에 비해 7차에는 다소 강화되었다. 그 이유는 초등의 경우 전체적인 교과시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재량시간이 크게 늘었기에 전체 시수는 늘어났으나, 교과 시수는 줄었다.) 국어과는 그대로이다. 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 등 다른 교과는 주 1시간 정도 줄어진 상황에서 국어과가 그대로인 점은 국어 시수가 사실은 늘어났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국어과의 위상과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국어과 과목의 배치 순서이다. 이번 새 교육과정에는 그 구성방식을 바꾸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의 교과별 학습 내용을 학교 급별 개념이 아닌 학년제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하여 기본 교과 중심의 일관성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시간, 특별 활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등 10개의 기본 교과⁵⁾로 구성하였다⁶⁾. 즉 10개 교과에는 국어과가 모든 교과목의 맨 앞에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원래대로 환원된 것이다. 교육과정 초창기부터 국어과가 맨 앞에 위치했으나, 제4차 교육과정부터 도덕을 가장 먼저 두게 되었고 이것이 제 6차 교육과정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이번 7차에 와서 비로소 국어과가 다시 맨 앞에 서게 되었고 그 뒤를 도덕이 따르게 되었다. 이것은 국어과의 중요성과 비중을 제대로 인정한 일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국어과야말로 명실상부하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해야 하고, 가장 앞서 언급하는 교과임을 다시 자각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국어과의 위상은 다른 교과에 비해 가시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다만 초등학교 1, 2 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되어 있다.

6) 한문, 교련, 교양은 선택과목이다. 교양은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경제, 종교,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기타로 세분된다.

V. 위계성의 강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 것이다. 국어과의 경우 10개 학년에 걸친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어서 교육내용의 위계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6차 교육과정에서도 학년별 혹은 학교급별 교육내용의 위계화를 전제하고 있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간별 교육내용의 위계화를 명시함으로써 교과 내부의 종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이제는 적어도 교육과정면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초등교육은 중등교육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적절한 운용으로 초·중등학교를 통합할 수도 있게 되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은 두 가지 원리를 내포한다. 즉 학생의 능력,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와 특징 또는 교과가 가르쳐지는 교육 단계의 특징에 따라 단계형, 심화·보충형 그리고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과의 내용이 비교적 위계적으로 되어 있으며,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학습 집단 구성원들 간의 능력의 개인차가 심하게 작용하는 수학, 영어 등의 교과에 주로 적용하는 교육과정으로 학년별이 아니라 10단계 또는 4단계 등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이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과의 내용이 다양한 종류의 과목이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집단 구성원들 간의 능력의 개인차가 그리 심각하게 작용하지 않는 국어, 사회, 과학 등의 교과에 주로 적용하는 교육과정으로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이다.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과목 내용의 다양성과 난이도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의 종류 및 난이도의 수준이 다양한 과목들을 설치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고등학교 2, 3학년 단계에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분류하여 보면 결국 국어과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지만,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과도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

니다. 예컨대 국어지식의 경우 어느 정도는 수준별로 지도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말하기나 문학 등도 마찬가지로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10개 교과 모두 적용된다.

VI. 통합의 지향

제7차 교육과정은 통합 지도를 지향한다. 개정의 중점 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교과군의 개념을 도입한 점이다. 이 개념의 도입으로 교과간의 통합 교육 및 열린 교육 체제를 확립하게 된 점이다. 특히, 고등학교 교과 편제표에 교과군의 개념을 도입하여 10개의 기본 교과를 I 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II 교과군(수학, 과학, 기술, 가정), III 교과군(체육, 음악, 미술), IV 교과군(외국어) 등 4개의 교과 군으로 분류하고, 교과 군별로 이수 비율을 차등 적용하였다. 교과군의 도입으로 동일 교과군 내에서 과목간의 중복이나 비약을 예방할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 통합 지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재량시간을 운영 할 때 특정 교과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6차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영역은 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언어, 문학의 여섯 가지였다⁷⁾. 교육과정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상위 개념으로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을 설정하고, 여기에다 언어와 문학을 더하여 크게 3등분하였던 것이다. 이 분할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그 중 하나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중요한 능력이 모두 합하여 ‘언어 사용 기능’, ‘언어 기능’ 혹은 ‘기능’이란 용어 속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항상 논자들은 이중적인 용어와 잣대를 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 중요성에 비추어보아 상위개념인 ‘언어 사용 기능’이 ‘문학’이나 ‘언어’와 동열에 놓이기보다는 하위개념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이 언어와 문학과 대등하게 취급되어져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도 ‘언어 기능’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 ‘언

7) 좀더 엄밀히 말하면 제 1~3차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제 4~6차에는 여기에다 언어와 문학이 도입되었다.

어'와 '언어 기능'이 같은 층위로서 다루어져야 할지도 의문이고, '기능'이란 용어 자체도 인간의 고등 사고 능력을 일컫는 말로써는 부적절하다. 그런데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 여섯 영역을 독립시켜 제시하였다.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이 그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할 만한 것은 '언어'를 '국어지식'이란 용어로 대체한 점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언어' 영역이라 했을 때 이것이 층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라 이를 '국어지식'으로 바꾼 것은 바람직한 교체라고 본다. 하나 더 언급하자면 국어과의 여섯 영역 중에서 '듣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점이다. 지금까지 음성언어를 문자언어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먼저 언급하곤 했는데 언제나 '듣기'보다는 '말하기'가 가장 먼저 나왔다. 그런데 이번 7차에는 '듣기'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어 습득 과정에서 듣기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며, '듣기'가 되어야 말하기가 된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도 '듣기' 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이 순위 바뀜을 뒷받침한다.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은 교수요목기부터 이번의 제 7차까지 통합교육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 자체는 별로 없고,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미국식 교육관과 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 없는 신뢰가 통합교육의 성과를 더디게 하고 있다. 통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국어과 영역간의 통합을 살펴볼 수 있다. 국어과의 영역을 제 7차 교육과정에 준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의 여섯 가지이다. 이 경우 상정할 수 있는 통합은 표현과 이해면에서 본다면 말하기와 쓰기가 통합 가능하고, 또 듣기와 읽기가 통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사이의 통합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의 통합이 그것이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 6차에서는 소위 언어사용 기능이라는 4개 영역을 3개의 교과서로 묶어 버렸다. 그것이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이다. 이는 분과교육과 통합교육의 교묘한 절충이다. 이는 곧 적지 않은 문제점을 도출했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언어'와 '문학'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독립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문학'과 '언어'는 각각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통합할 수 있다고 본 듯한데 이는 영역 사이의 독립성으로 보나, 통합교육의 측면에서 보나 설명할 길이 없다. 다

음으로 ‘말하기’와 ‘듣기’는 하나의 교과서로 통합하고, ‘읽기’와 ‘쓰기’는 각각 별도의 교과서로 편성한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더욱이 유독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에서는 ‘말하기’, ‘듣기’, ‘쓰기’를 통합하여 하나의 교과서로 편성하고 있는 점은 수상한 일이다. 이것은 원래 저학년에는 통합적 접근이, 고학년에는 분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도 위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 시도한 세 가지 교과서 분책에 대한 모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할 통합방법을 제시한다면, 우선 두 가지 방법을 상정할 수 있겠다. 하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내세우고 각각의 언어 활동에 ‘국어지식’과 ‘문학’을 포함시키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는 반대로 ‘언어’와 ‘문학’을 교육과정 상의 교과서로 편성하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그 구체적인 언어 활동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언어 활동을 중시하되, 그것에 필요한 언어적 지식과 언어 활동 자료를 각각 ‘국어지식’과 ‘문학’에서 공급하는 형식의 교과 구성 방법인데, 이는 초등학교 단계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국어 지식과 문학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언어 활동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중등학교 단계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초·중등학교의 국어과 교육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또한 나선형의 반복 학습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제 6차에서 보여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분책의 과행성을 감안하고, 또 이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참고가 되어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한다.

VII. 국어교육의 전망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로 대변되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어교육의 미래를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몇몇 관련 학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국어교육을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할 것인

가를 밝히기보다 지극히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국어교육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국어교육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일은 국어와 국제어인 영어와의 관계이다.

1.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반성

우선 97년 3월부터 초등학교에 영어 교육이 도입된 이래 이를 국어와 관련지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의 도입은 단군 이래 최초로 역사적 사건이다. 초등학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언어 습득 이론상 조기교육이 바람직하다는 기왕의 견해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어의 실용성은 이미 국민 개인이 자각한지 오래이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확대하는 전략의 일단이기 때문이다.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 6차 교육과정기를 시행하는 중에 갑자기 도입되어 초등 3학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영어 교육은, 시행 자체에 대한 논의와 내부검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러기에 국민들이나 영어교육 전문가들의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다. 이런 출발에 즈음한 문제점 이외에 초등 영어교육 도입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측면을 지적한다.

첫째, 국어의 급격한 소멸이 예상된다. 장차 영어가 전국민에게 보급되면 민족어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짧게는 수백년 안에 역전될 수도 있다. 그 이유로 개인에게 두 언어를 균등하게 동시에 구사하는 일은 드물며, 어느 쪽으로든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도입으로 이것의 시기가 급격히 당겨지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의 영어 도입은 이제 전국민에게 영어를 의무적으로 습득할 것을 강요하는 성격을 지니며, 이 강요는 영어를 공용어로 삼겠다는 의지와 국어의 전통을 단절해도 불가피하다는 뜻이 있다.

둘째, 민족의식의 소멸이다. 지금 팽배하고 있는 개인주의는 민족어를 미련 없이 포기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국제어로 대체함으로써 자신의 민족 및 민족어의 소속을 분별하지 않을 가능성을 안고 있다. 민족어의 소멸과 민족의식의

종언은 동시에 실현된다. 모국어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아동들에게 외국어를 주입한다는 것은 탈민족주의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⁸⁾ 그것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는 물론이고 정서와 문화에 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국어교육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영어교육 때문에 수학이나 음악 교육이 타격을 받기보다 국어교육이 큰 영향을 입기 마련이다. 영어는 국어과 같은 언어이기 때문이다. 국어는 영어에 눌러 그 정체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국어교육의 위축을 수반한다.

넷째, 경제논리를 적용할 때다. 모든 일에는 경제법칙이 적용되는 법이다. 영어교육을 위해 지금 쏟고 있는 엄청난 투자와 고비용은 오늘날 우리의 형편에 사치는 아닌가 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한다.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져서 점심을 못 싸오는 수만은 학생들은 외면하고 비싼 영어교재와 수업료, 교사들의 연수비용이 과연 적절한 교육적 운용인가도 곰곰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은 육이오 이후 최고의 경제난국이라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영어는 여전히 어려운 국가보다 상위개념으로 착각할 만큼 우리의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다. 지금 이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그 손익을 따지고 있는 교육전문가나 정책입안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도 반성해 볼 때다.

위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봐도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영어교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할 것이다. 흔히 영어교육을 잘 시키면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들을 한다. 그러나 내실 있는 국어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영어교육을 시킨다면 이 양자의 관계가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영어교육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거기에 걸맞은 질 높은 국어교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이것이 21세기 국어교육의 가장 중요한 좌표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8) 김민수(1998:296)에서는 민족의식의 종말을 길게 5세기 후로, 짧게는 1세기 후로 추정하였다. 특히 1990년의 전망에서는 지나온 5세기를 근거로 하여 인류사회의 민족의식이 그만큼 지속될 것이라고 길게 추정했고, 1997년에는 초등학교에서 도입한 영어교육의 영향으로 장차 영어가 전국민에게 보급되어 공통어화하게 될 것을 근거로 그 의식이 1세기 가량 존속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2. 영어지배설의 허실

우리 민족어는 사양길을 건다가 1세기 지날 무렵에 소실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한다. 우선 수천년 외세를 극복하며 기적적으로 면면히 계승해 온 우리말이 미구에 소실되겠느냐고 반문하겠지만, 현대의 전망으로는 영어 공통어로 교체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김민수, 1998 : 302).

이런 비관적인 견해는 꽤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로 대표되는 지구촌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정보는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전세계 우편물의 70%가 주소지를 영문으로 표기하고, 국제 통화의 85%가 영어로 이루어지며, 수억 대에 달하는 컴퓨터의 데이터 정보가 영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적어도 현대를 호흡하는 사람들이라면 매일 영어와 씨름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이런 사실들이 국어교육의 장래를 생각하게 한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국어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영어가 모든 언어의 세계를 지배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른바 전 세계의 언어를 영어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영어지배설이 대두되고 있다. 이 이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에는 영어라는 언어가 도사리고 앉아 전달과 해설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갖는 국력의 소산으로 보기에 일시적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국력은 쇠잔해져도 한 언어에 익숙했던 인류가 이를 쉽사리 버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그러면 이는 영어지배설을 강화해 준다. 영어는 영구히는 몰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국제어로서 자리 매김을 계속하리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그러나 영어의 세계 지배설은 몇 가지 점에서 반론에 부딪친다. 필자 나름의 반론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영어가 모든 사람들의 제2의 언어가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모국어에 대한 중요성과 애착심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는 자기들의 고유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기울여 온 사람들이 많다. 주민들이 거의 프랑스계 이주민들로 구성된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 영어에

맞서 프랑스어를 고수하기 위해 간판을 프랑스어로만 표기해야 하며, 영어 간판은 법으로 금지하다가 상업적 가치를 생각하는 일부 주민들이 UN 인권 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프랑스어 표기를 최소한 2배 이상 크기로 병기하는 것으로 수정한 바가 있다(John Naisbitt 지음, 정성호 역, Global Paradox, 1993 : 39-40). 결국 영어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하겠지만 자국어 버리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모국어에 대한 보존력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화는 지역화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세계의 언어가 영어로 단일화되어 가는 듯 하지만 실은 각 민족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역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국어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제 영어교육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영어교육은 물론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는 국어를 희생해가면서까지 배워서도 안되며, 영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것을 더 아끼고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이지 우리의 것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국어교육이 지향할 바다. 이것은 마치 비록 우리가 외국에 물건을 팔기 위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만 마음까지 팔아서 안 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21세기에 가면 국어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세계는 다양화를 근간으로 할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서이다. 다양화 속에는 문화의 다양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문화의 핵심이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어로 획일화되어 가는 세계화에 염증을 느끼고 더욱 자기 고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리라는 예상이다. 특히 영어말고도 유럽의 언어들이나 아시아의 언어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 단일어화에 따른 반발일 것이다.

세 번째의 반론은 하나의 가정에서 출발한다. 지금은 영어가 세계어로 대접받고 있지만 더 신속한 정보력과 기술력을 가진 강력한 집단이 등장하기만 한다면 전 세계는 그 집단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가설이다. 이 집단이 중국과 같은 잠재력이 있는 국가가 될지 하나의 작은 부족과 같은 집단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실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네번째로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영어지배설의 허구는 영어와 민족어가 대립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과 관련하여 한 사건을 언급한다. 어느 신문 지상을 달구었던 '21세기의 민족어와 세계화'에 관련된 논쟁은⁹⁾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어느 때보다 영향력이 강해진 영어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국어와 민족주의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데 이 논쟁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끌고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실은 출발점부터 어긋난 논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논쟁의 논자들은 대개 민족어와 국제어(영어)를 대립으로 보고 한쪽이 성하면 다른 한쪽은 사라지는 이분법적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데(이미 어떤 논객도 이 논쟁의 무의미성에 대해 지적하는 언급한 다음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인간의 사고가 흑백논리체계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간과한 것이다. 즉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지면 우리 국어가 사라질 우려가 없고, 반면에 국어를 열심히 한다해도 영어는 영어대로 중요하니까 같이 공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 둘의 관계를 대립·배타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국어교육이 담당해야할 몫에 속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국어가 1세기만에 없어진다는 가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대표되는 21세기가 되면 우리의 국어는 영어에 밀려 존재가치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국어의 중요성은 더 증대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 해도 영어로

9) 조선일보 98년 7월 31일자 기사에 실린 내용을 소개한다. 복거일씨의 책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문학과지성사간) 발간 사실이 처음 조선일보 문화면에 나간 것이 2일. 닷새만인 7일 국어학자 남영신 씨의 복 씨에 대한 비판이 게재돼 논쟁이 시작됐고, 이어 한영우, 정과리, 박이문, 함재봉, 최원식씨 등의 지상 논전이 이어졌다. 그리고 인터넷에 이 논쟁의 홈페이지가 개설된 지 보름만인 30일 현재 인터넷 조선일보의 영어공용어화 찬반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3만7천명,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 한 사람은 1천1백85명이었다. 대중적인 주제도 아니고, 당장 먹고사는 것파도 거리가 있는 문제가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일까?. 인터넷 투표 비율은 공용어화 찬성이 45.1%, 반대 54.9%로 나타났다. 물론 인터넷 투표는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세대가 20~30대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결과는 향후 우리 사회 의식의 변화와 관련, 중요한 연구과제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와 같은 소설을 쓸 수는 없다. 이것의 세계화는 한글로 된 소설 ‘토지’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인터넷상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를 홍보한다고 할 때도 이것의 사고 과정과 문자처리는 국어로 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 이 때 영어는 단순한 번역이나 통역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질 뿐이다.

마지막으로 6차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시간이 더 줄어든 초등영어교육처럼 영어에 대한 반성적 사고는 국어교육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그 중요성을 단단히 인식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리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이 가야할 방향이다. 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우리의 학생들이 외국어 공부는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다고 국어를 쉽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민족주의의 역기능이 문제된다면 개량된 민족주의도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는 국어에 대한 낙관론을 제시한 셈인데 민족어의 앞날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은 국민적 에너지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3. 국어교육의 전망

21세기 이후에는 그 시기의 불예측성은 있지만 국어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도입한 영어교육체제는 국어의 장래는 한층 어렵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암울한 상황으로 가는 길을 막는 방법은 교육에 달려있다. 김민수(1998 : 303-304)에서는 이를 민족어가 영어로 교체되는 것을 저지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초등교육의 영어필수, 미국 일변도의 교육을 다변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차, 세계화에 대응키 위해서는 영어만 아니라 중국어, 독어 등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말단으로 전락한 교육을 발전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역시 미국 일변도의 교육방식을 지양하여 팽만한 이기주의를 청산하고 남을 해치 않고 책임감이 강한 자유주의가 체득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이 교육의 회복을 개선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오늘의 교육은 결국

소인배에다가 이기주의를 조장시키고 본능의 만족을 지향케 한다.

교육에 대한 노학자의 따끔한 일침을 경청해야할 것이다.

이미 세계화·정보화의 파고는 이미 매우 높고 거칠다. 앞의 국어 중요성 이론은 몇몇 사람들의 견해에 그치고, 현실주의자들은 국어를 외면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전세계는 이미 군사전쟁에서 경제전쟁으로, 또 정보전쟁으로 하루도 영일이 없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은 태어나자마자 육체적으로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 언어를 먹고 자란다. 따라서 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기능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의 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견해¹⁰⁾야말로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세계화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선박은 어차피 대한민국호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 배의 닻은 국어가 될 수밖에 없다. 닻이 없는 배는 정박할 수 없으며 국어를 무시하는 국민은 영원한 국제적 미아로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어는 우리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해주는 가장 확실한 그 무엇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어교육, 특히 21세기의 시작 시기에 시행될 제7차 교육과정이 담당해야할 몫은 크게 늘어나 있고, 그 역할 또한 매우 중차대하다. 즉 우리말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는 것,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 모국어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 등이다. 이 교육을 위해서는 언론이 앞장서야 할 것이고, 교육부·문화체육부나 국립국어연구원같은 정부기관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사가 앞장서야 한다. 이런 역할이나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할 때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 7차 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10) 이상태(국어교육의 기본 개념, 1981, 27-33)에서는 국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말이다.

- 국어는 '얼'이어야 한다.
- 국어는 가능성이어야 한다.
- 국어는 배달겨레의 얼이어야 한다.
- 국어는 민중의 말이어야 한다.
- 국어는 '한글'로 나타낼 수 없으면 안 된다.
- 국어는 순수성과 통일성을 지향한다.

참 고 문 헌

교육부(1993), 국민 학교 교육 과정, 교육부.

교육부(1993), 국민 학교 교육 과정 해설(1)-총론, 국어, 수학-, 교육부.

교육부(1998), 국어과 교육 과정, 교육부.

교육부(1998), 자육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 교육부.

김민수(1998), 민족어의 장래, 국어학 31, 국어학회.

정성호 옮김(1997), 글로벌 패러독스(John Naisbitt, Global Paradox), 한림미
디어.

조선일보 7월 2일 ~ 7월 31일.